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8 호

2019 년 7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7/12)
2. <나주·광주>(7/24), <대전·세종>(7/25)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3. 제11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8/20-8/22)
4.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 결과 (7/5)

■ 본부 소식

1. 주요 기업 리더들과 글로벌 의사 결정자들이 기후행동 촉구를 위해 아부다비에서 만나다.
2.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비즈니스의 참여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7 –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2. [SDGs 솔루션] 공장의 잔열로 도시 난방하기
3. [Goal 17, 8, 4]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OTRA

■ UNGC 회원 뉴스

1. 유한킴벌리,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선정
2. IBK기업은행, 미얀마에 친환경 쿡스토브 1만2천대 지원
3. 예탁결제원, 기보·남부발전과 감사업무 선진화 협약
4. 동서발전, 사회적가치 창출 위해 내·외부 전문가 한자리에
5. HUG, 1일 창립기념일 맞아 '인권경영헌장' 선포

■ CSR 뉴스

1. 유엔 사무총장 "기후 급변 예측보다 빨라"...긴급 대응 촉구
2. 국민연금, 9월까지 ESG 책임투자 방안 마련키로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결과 (7/12)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참석자: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한국도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 컴플라이언스·반부패·윤리경영 실무자 8인

*Co-Chair: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 한국무역보험공사 최가영 대리,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

UNGC 한국협회는 7월 12일 오후 반부패 실무그룹의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는 지난 1차 미팅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기업의 반부패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은 해외 우수 사례로 영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인 '롤스로이스'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2012년 해외시장에서 뇌물 및 부패 혐의가 제기되었고, 몇 년간의 조사 끝에 미국 법무부(DOJ)와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 스캔들 이후 외부 전문가인 로드 골드(Lord Gord)를 선임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력한 반부패 이행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특징은 글로벌 행동규범을 21개 언어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사업장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회사, 사업 파트너에게도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특히 조직의 리더와 매니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정책을 갖추고(예: 선물 및 접대, 이해상충, 로비 및 후원, 급행료, 오프셋 정책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제 3자 그룹을 분류하여 실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인 반부패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 및 제 3 자를 포함한 다양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툴을 실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윤리 핫라인을 활성화하고 접수된 질문과 제보 건수 및 내용, 응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매달 경영리더십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업장에 100 여명의 Local Ethics Adviser(LEA)를 지정하여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딜레마 상황에서 LEA 에게 제보 및 상담을 통해 사전에 부패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 및 부패에 대한 조직 내부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컴플라이언스팀 김정배 책임은 롯데쇼핑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발표하며, 특히 작년 롯데백화점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시 개선 및 보강한 'Plan-Do-Check-Act'에 따른 각각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상황별 리스크에 따른 대응 및 관리방안을 사규화 하였으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리스크 유형별로 컴플라이언스팀이 사전 검토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 1 회 모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실사를 진행하고, 지점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임직원 설문조사 및 각 지점 담당자의 개선의견을 취합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방향을 결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인 경영진 보고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기획팀 임정철 차장은 도로공사가 최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윤리서약 혁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지시 근절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를 파악하고, 부당지시 근절을 테마로 한 서약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서약문의 초안은 전 직원이 회람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160 여명이 참여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계적 어조를 완화하고 부당 업무지시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서약서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서약 캠페인을 실시하여 서약 참여자 명단 및 서약서를 공개하였으며, 서약 100 일 후 인트라넷을 통해 서약

참여자들에게 재안내하여 캠페인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청렴 퀴즈대회와 직원들의 추천을 통한 청렴 우수자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자사의 반부패 현안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윤리경영 이슈에 대한 임직원의 피로도에 따른 내부의 인식 격차와 부서간 협력 부족 등 전사적 이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의 반부패 교육 참여와 고위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각의 현안에 대해 상호 피드백을 교환하고, 자사에서 실행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중 성과가 있었던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앞으로도 기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동료 학습 및 반부패 관련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UNGC 와 실무그룹은 공동으로 서베이 및 문서 발간과 반부패 윤리경영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문보기]

2. <나주·광주>(7/24), <대전·세종>(7/25)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정보(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시 의무화, 사회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동반성장, 윤리경영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 산하의 기업 지속가능성 내재화를 위한 세계 최대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유엔,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확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나주/광주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을 살피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통한 주요 활동 및 혜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7월 24일 (수) 14:00 - 17:00 | 장소: 한전KDN 3층 다목적실
공동주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
대상: 나주 · 광주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및 UNGC 회원사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4:00 - 14:05	'5	인 사 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15	'10	참석자 소개
14:15 - 14:2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20 - 14:50	'3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곽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 연구원
14:50 - 15:00	'10	휴 식
15:00 - 15:40	'40	나주·광주 소개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 임아영, 한전KDN 윤리준법팀 차장 - 이세호,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과장
15:40 - 16:00	'20	UNGC 참여 혜택 및 절차 소개 - 김경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16:00 - 16:50	'50	기업별 자사 지속가능경영(CSR) 사례 공유
16:50 - 17:00	'10	Closing

-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gckorea@globalcompact.kr)을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김경민 과장, 이서영 연구원 (02-749-2149)

공동주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후원:  **광주광역시**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대전세종소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각국의 CSR 법제화, E·S·G 정보 공시 강화, 사회적책임투자(SRI)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인권·반부패 법 강화 등의 추세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공공조달에 있어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양성평등, 환경, 노동의 질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요소들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UN Global Compact, ISO26000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는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최신 동향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비롯해 UNGC 및 한국협회 활동·혜택·가입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대전세종 소재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UNGC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장소: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7층 회의실 (701호)

일시: 2019년 7월 25(목) 14:00 - 17:00

대상: UNGC 회원사 및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표 및 실무진

참가비: 무료

시 간		프 로 그 램
13:30 - 14:00	30'	등 록
14:00 - 14:05	5'	인 사 말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05 - 14:10	5'	UNGC 한국협회 소개 영상
14:10 - 14:45	35'	공기업·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4:45 - 15:10	25'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
15:10 - 15:20	10'	휴 식
15:20 - 16:10	50'	대전·세종 소재 UNGC 우수 회원 지속가능경영(CSR)·사회적가치 추진 사례 - 노해룡, 한국철도공사 미래혁신실 차장 - 신흥섭,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차장
16:10 - 16:30	20'	UNGC 가입 혜택, 절차 및 주요 정책 소개 -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16:30 - 17:00	30'	질의응답 및 폐회

- * 신 청: 아래 신청 링크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 * 문 의: 임애화 선임연구원 02-749-2150
- * 홈페이지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3. 제 11 회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8/20-8/2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는 2009년부터 협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UNGC 회원들 간 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동 컨퍼런스는 <SDGs for Business – Try First to Be A Pioneer>를 주제로 중국 제남에서 개최되며, 한·중·일 UNGC 회원사 간 협력 및 학생 대표단 간 교류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SDGs 추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통해 한중일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SDG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중일 학생 대표단은 SDGs 14, 15번 목표와 연계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역할 및 대중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합니다. 회원사의 중국법인 CSR 및 이슈 담당자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

주관: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후원: 중국 제남시(Jin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장소: 중국 제남(Jinan) 웨라톤 제남호텔 | 일시: 2019년 8월 20(화) – 8월 22일(목)

참석대상: 한·중·일 기업, 학계, 지자체, 시민사회, 학생대표단 등

8월 20일(화)

시 간		프 로 그 램
All day		Youth Program
18:30 – 21:00	150'	환영 만찬 - 한중일 연사 및 대표단 참석

8월 21일(수) : 본회의

* 영어-중국어 동시통역 제공

시 간		프 로 그 램
08:30 - 09:00	30'	등 록
09:00 - 09:05	5'	환 영 사 Fu Cheng Yu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09:05 - 09:15	10'	개 회 사 Toshio Arima,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회장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15 - 09:20	5'	축 사 (TBD)
09:20 - 09:50	30'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11주년 행사 - 프레젠테이션 및 기념촬영
09:50 - 10:30	40'	기조연설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및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TBD)
10:30 - 12:30	120'	기업세션 1: 지역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한국, 중국, 일본 기업 발표 및 토론 - 한국: Jane Zhang,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 홍보팀장
12:30 - 14:00	90'	오 찬
14:00 - 15:45	105'	기업세션 2: 기후변화 해결 방안 모색 및 지역 개발 달성 한국, 중국, 일본 기업 발표 및 토론
15:45 - 16:00	15'	커피 브레이크
16:00 - 17:00	60'	기업세션 3: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술혁신 방안 한국, 중국, 일본 기업 발표 및 토론 - 한국: 유웅환, SK텔레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센터장
17:00 - 18:00	60'	학생세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및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SDGs 14, 15) 한중일 학생 대표단 (Mixed Team)
18:00		폐 회 사
18:30 - 21:00	150'	저녁 만찬

• 8/22(목): 기업 방문 프로그램 및 명소 탐방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49, 50

- 홈페이지 이메일: www.unglobalcompact.kr gckorea@globalcompact.kr

[\[프로그램 다운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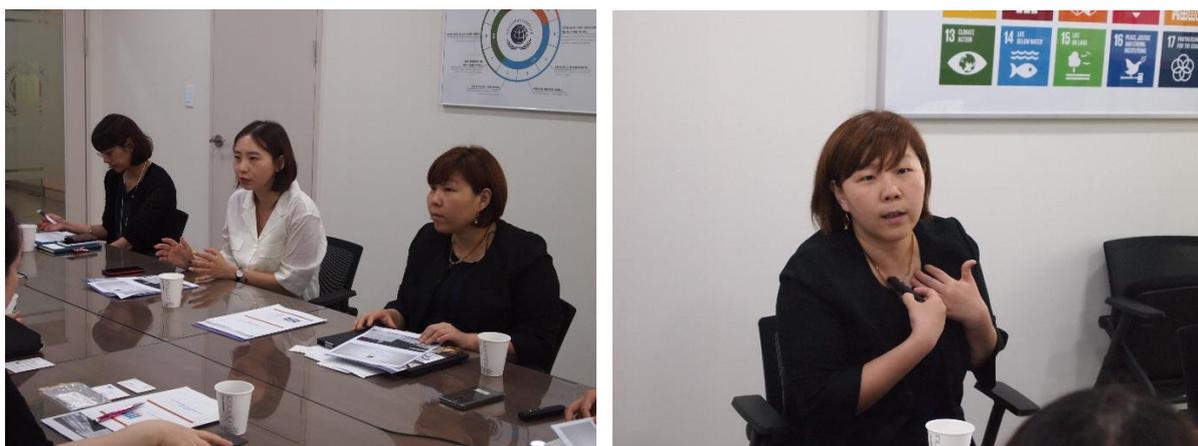
[\[원문보기\]](#)

4.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전략 간담회 결과 (7/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지난 7월 5일 '고위험 분쟁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전략: SDG 16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동 간담회에는 UNGC 회원사 중 고위험 분쟁지역, 특히 FCV(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CSR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세계은행은 포용적인 경제 및 사회 구현이라는 철학적 토대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SDGs의 빈곤 종식 및 평화로운 사회 달성을 위해서는 분쟁, 취약국 등 고위험 지역의 평화 및 개발이 필수적이고, 기업은 투자,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파트너십 등에서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의견 공유를 당부했습니다.



첫 순서로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이 UNGC 본부에서 발간한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이행 지침(Guidance on Responsible Business in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을 중심으로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적용 사례와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기업 경영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분쟁 및 고위험 지역의 평화증진과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UNGC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 플랫폼의 설립 배경과 이슈별 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핵심 사업 ▲대정부관계 ▲지역 이해관계자 연계 ▲전략적 사회 투자의 4 가지 기업 이행전략과 분야별 비즈니스 기회도전을 설명했습니다. 유니레버, 쉘브론,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B4P 이행 사례 및 오슬로 B4P 어워즈에서 수상한 TTI Global, Chobani 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두번째로 정다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이 '분쟁, 취약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주제 하에 세계은행의 FCV(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전략 및 FCV 국가 대상 주요 협력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정 담당관은 "2030년까지 빈곤층의 60%는 분쟁, 취약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FCV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 억명에 달하고, 현재 인도주의 지원금의 80%가 분쟁으로 인한 상황 완화에 쓰이고 있다."며 고위험 지역의 리스크를 강조하며, "기업의 사업과 투자는 정부부처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며, 또한 평화구축, 인도주의 사업 지원, 분쟁 예방 및 개발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4P)의 우수 사례로 꼽힌 한국의 개성공단, 인도네시아의 다른 종교간 화합, 콜롬비아의 내전 이후 참전군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사례도 공유하였습니다. 더불어 ▲ 취약 분쟁국 진출 시 고려해야할 애로사항 및 리스크 ▲ 분쟁취약국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 UN, 개발은행, 정부, 투자자의 역할 ▲ 남북경협 대비 기업 진출 전략 모색 ▲ 세계은행 협력 시 기대되는 장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번 간담회는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B4P)'와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경영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진출 전략 제시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B4P 플랫폼 외에도 기업의 비즈니스 및 핵심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남북경협 추진 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Business For Peace, B4P\) 안내 바로가기](#)

[세계은행그룹 FCV 전략 바로가기](#)

[\[원문보기\]](#)

본부소식

1. 주요 기업 리더들과 글로벌 의사 결정자들이 기후행동 촉구를 위해 아부다비에서 만난다.

아부다비 기후변화 회의(Abu Dhabi Climate Meeting)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를 준비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에서 160여개국 1,700여명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 청년 대표들이 9월 23일 개최될 유엔 기후정상회의의 사전 준비를 위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 리더들과 함께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량 순제로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환경부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업으로 개최된 아부다비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될 이니셔티브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에 따라, 본 회의는 글로벌 기후행동을 위한 정치적 장애물과 기회에 대한 논의의 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부, 도시, 기업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동안보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We Mean Business, The B Team,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유엔 기후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대해 기업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밥 오르(Bob Orr)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선임자문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30 개 이상의 기업 리더들과 주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본 회의에는 2050 년까지 세계에서 탄소제거를 위한 민간부문의 행동 · 혁신과 유엔 기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기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런칭된 [1.5°C 달성을 위한 기업의 도전: 우리의 미래\(Business Ambition for 1.5°C: Our Only Future\)](#)와 [올바른 변화를 위한 기업 리더십\(Business Leadership for a Just Transition\)](#)과 같은 민간부문 서약을 포함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달 초,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 시민사회, UN 리더들과 함께 '1.5°C 달성을 위한 기업의 도전: 우리의 미래(Business Ambition for 1.5°C: Our Only Future)' 캠페인을 런칭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업들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후행동 촉구는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공개서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서한에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을 비롯해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르세스(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유엔총회 의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Jayathma Wickramanayake) 유엔사무총장 청년특사, 폴 폴먼(Paul Polman) 전 유니레버 CEO 등 25 명 이상의 리더들의 서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고 최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 기업 리더들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하여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9 월 23 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민간부문포럼에서는 1.5°C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선도적 기업 리더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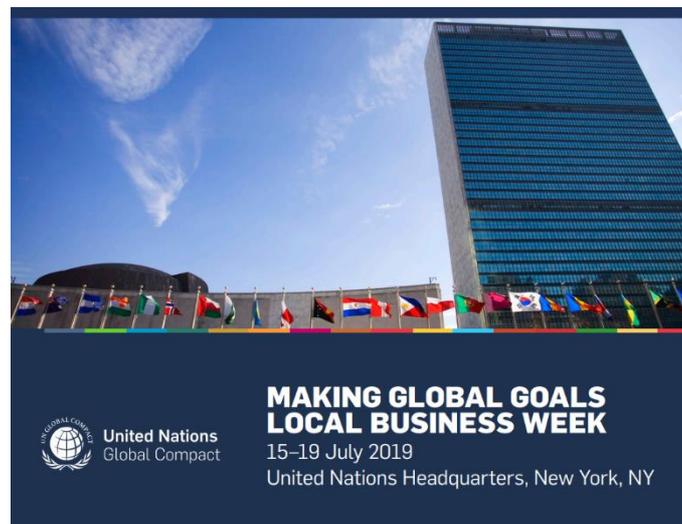
un.org/en/climatechange

다음 웹사이트에서 캠페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unglobalcompact.org/OurOnlyFuture

[원문보기]

2.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비즈니스의 참여

2019년 7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제 1회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Week'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업의 SDG 우수이행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지역화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Week에서는 61개 로컬 네트워크, 유엔글로벌콤팩트 전문가 네트워크(UN Global Compact Expert Network), 유엔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s),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 등 10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SDG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기업의 주요 기회를 논의합니다.



7월 15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제상공회의소(ICC)와 공동으로 기후 행동 및 적정 규모의 금융 촉진(Mobilizing Climate Action and Finance at Scale)에 관한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 행사에는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2019 유엔 기후정상회의 특사,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및 존 덴튼(John Denton)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로컬 네트워크 포럼은 유엔 및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SDG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 사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15일, 16일 정기 회의에서는 SDGs를 위한 금융혁신 행동플랫폼과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행동플랫폼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이어 17일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18일에는 목표 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플랫폼을 논의하는 유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7월 17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제경영자단체연맹(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미국 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및 딜로이트(Deloitte)와 공동으로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관한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관한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 칠레협회, 칠레, 독일, 아일랜드, 케냐 정부 후원으로 18 일에는 'VNR Lab: SDG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촉구'에 관한 국가별 · 지역별 파트너십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19 일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니세프가 협력하여 '미래 직장의 재설계 가족 친화적 정책에 관한 책임 공유'를 주제로 행사를 주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UN Global Compact Business Guide to HLPF 20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7 –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Goal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파트너십과 협력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SDG 이해관계자 중 핵심 파트너로 전문성, 경험, 자원, 지식 접근성 및 혁신 역량을 제공하지만 홀로 변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며, 모든 분야의 니즈나 가장 좋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모든 국가의 SDG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정부, 다자간 기구, 시민사회 및 학계와 협력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소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경영활동'에서 관련 있는 주요 파트너십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재원을 모으고, 개발도상국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기술·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선도적인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합작 영향력을 통해 적어도 최빈개도국에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논의에서 제외되기 쉬운 취약한 커뮤니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원칙에 기반하고, 필요에 따른 것이며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유엔의 가치를 반영하여 투명성, 신뢰성, 포용성을 보장합니다.



BUSINESS ACTION 1

책임 있는 세무 관행을 통한 내수 자원의 유통 개선 파트너십의 선도

정부는 SDG 발전을 위해 법인세 수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소한 자사의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조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책임 있는 세무 관행을 채택하고, 탈세를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별 보고를 통해 투명한 세무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동종업의 기업들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책임 있는 조세를 선도하여 납세 회피를 최소화하는 국제조세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소규모 현지 기업에게 조세 관련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 IT 기업 A 는 정부, 납세자, NGO 및 회계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조세 수입을 징수, 신고 및 납부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 은행 B 는 조세와 매출 자료를 공개하고 각 운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 은행은 책임 있는 납세에 대해 가장 높은 기준을 채택하고 동종 업계에 있는 파트너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2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도록 민간부문 자원 고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발전 파트너가 되어 인프라, 주요 서비스, 비즈니스 성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재원을 고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들로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 자원 파트너십은 금융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업들은 재정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역량,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환경 · 사회적 리스크 보고의 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재원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우수사례

- ▶ 투자 은행 A 는 녹색채권, 녹색자산담보부증권과 같은 녹색 금융과 사회적 펀드 운영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선도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에너지 접근성 증대 촉진을 위한 초기 투자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당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은행 A 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통상개발 관련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수 백만 가구에 깨끗한 요리 시설 제공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 ▶ 인도에 위치한 통신 회사 B 는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저렴한 인터넷 접근성, 최종연계성 수단,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섬유 통신을 포함한 외지 인프라 투자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 ▶ 저개발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 정부 부처와 협업합니다. 회사 B 는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요 교통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광섬유 케이블 설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 투자 회사 C 는 UNDP 와 협업하여, 사하라 이남 5 개국의 태양열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BUSINESS ACTION 3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술, 지식,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공유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한 해결책 개발 및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술, 지식,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사례

- ▶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통신 회사 A 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은행,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현지 커뮤니티를 위한 모바일 지불 수단을 개발하고, 소외 계층을 위해 은행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 B 는 회사의 지적 재산을 무료로 제공하며 동종업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 업계에서 저탄소 교통수단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합니다.
- 전자 회사 C 는 업계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윤리 기준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 C 는 동종업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부패를 추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합니다.
- 지역 통신사 D 는 유니세프와 현지 정부의 주민등록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출생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BUSINESS ACTION 4

개발도상국의 규제, 기관, 인력 역량 구축

기업은 개발도상국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자사의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교육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진출 지역의 공급망, 공공 부문, 시민사회의 조직 역량도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법적 · 규제 체제 개발도 용이하게 합니다.

우수사례

- 다국적 채굴 기업 A 는 다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및 법제 개선을 지원합니다. A 사는 본국에서 판사를 초빙하여 진출 국가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였고, 현지 사법연수원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 B 는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역 내 삼림 연구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다국적 기업 C 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 사는 단순한 기업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윤리적 경영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BUSINESS ACTION 5

파트너십을 통한 SDG 달성의 구조적 문제 해결

SDG 달성을 위해 협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공식화된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아동노동, 빈곤, 성폭력 및 차별 등 개발과 인권 실현을 저해하는 수많은 구조적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대기 등의 범국가적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지구 스튜어드십(Earth Stewardship)을 위해서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은 파트너십 구축 또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 글로벌 음료 제조 회사 A는 아프리카의 a 국가에서 민간부문, 공공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반부패를 위한 기업 연합(Business Coalition Against Corruption)'의 주요 참여 기업입니다. 본 회사는 a 국가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와 함께 런칭한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윤리 강령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기업간 연합체 B는 성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로부터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북아메리카 b 주의 공민권법 개정을 지원합니다.
- 의류 제조업체 C는 안전한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노동 조합과 독립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 '소방 방재 및 건물 안전을 위한 협약(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합리적인 방재를 사용하여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공장의 잔열로 도시 난방하기

브예링브로(Bjerringbro)의 난방공사가 그린포스(Grundfos)와 협업하여 그린포스 공장의 잔열로 지역난방을 제공합니다.

브예링브로의 지역난방공사는 그린포스 (Grundfos)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그린포스사의 공장 냉각수를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인 “에너지센트럴” (The Energy Central, Energicentralen)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브예링브로 지역은 공장의 냉각수를 난방펌프로 공급받아 공장 기계를 냉각하고 잔열을 저장하여 지역난방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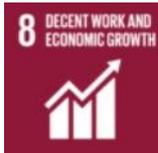


그린포스 공장의 냉각시스템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으며 냉각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열을 배출합니다. 브예링브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매년 전체 지역난방의 15%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에너지 센트럴 프로젝트(13,500MWh)와 추가 냉각수 (10,500MWh) 잔열을 통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론포스는 공장 방문객들이 냉각시스템과 잔열 활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장내에 관람창과 안내 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활동 성과로 에너지센트럴 프로젝트는 2014 년 올해의 열펌프 도시상 (Heat Pump city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냉각수 잔열을 재사용하게 되면서, 지역난방공사는 화석연료를 소비를 줄이고, 공장 측에서도 냉각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에너지센트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혁신과 인프라 구축

에너지센트럴 프로젝트를 통해 열과 오염물질이 원활히 재처리 되면서, 그론포드는 기존 냉각시스템을 증축하지 않고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그론포스와 브예링브로 지역난방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원문보기\]](#)

3. [Goal 17, 8, 4]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KOTRA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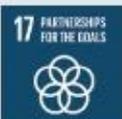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OTRA 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으로 인류의 미래와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기업 활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UN SDGs 를 내재화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선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경영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KOTRA 는 가치사슬 전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SDGs와 연계한 KOTRA 주요 활동 현황

SDGs	영향 및 가치	주요 프로그램
	<p>신흥국, 저개발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KOTRA는 SDGs 이행과 연계하여 시장과 현지의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물품 전달 및 구호 성금 기부 (해외무역관별 구호 물품 및 성금기부) - 민간개발원조(PDA) 추진 (글로벌 CSR 사업 발굴 및 시행)
	<p>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복지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KOTRA는 의료관련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약자, 아동 대상 의료 활동 (중국-자페아 대상 무료 건강 검진 등) - 의료 물품 기부(혈당측정기, 염소소독기 및 소독약품, 항생제, 면지마스크, 시니어 제품, 시각/청각 장애인 혁신 제품 등)
	<p>양질의 교육은 사람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상시키는 기초입니다. KOTR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도상국 및 취약 국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출학교 운영 - 다문화무역인 육성사업 - 기술학교 운영
	<p>실업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안정적이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취업 지원 프로세스 - 취업스쿨/캠프/박람회 - 인도네시아 OVOP(One Village One Product) 사업 - 몽골 캐시미어 사업 - 네팔 유기농 커피사업
	<p>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은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다각화하고 제품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인정/제품 생산/공공 서비스 분야의 운영 경험과 유휴장비 무상 이전
	<p>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사회/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KOTRA는 산업/무역/투자 KSP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무역/투자 KSP 사업
	<p>SDG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KOTRA는 각국의 정책과 리더십을 존중하며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ANTRA 후속 사업 - 통상 연계 경제협력 사업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상생협력형 개발협력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경제협력국가의 산업·무역·투자 분야에 대한 정책 자문 및 민관협력 사업 지원으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입니다. KSP 사업의 정책자문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관세, 비관세, 행정관행 등의 진출 장벽을 해소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KOTRA 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정부에게 무역진흥센터 건립·운영지식을 전수하여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벨류체인 진입을 도왔습니다. 쿠바 산업부에는 외투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조언하여 현지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양국간의 교류 확대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칠레 보건부에는 원격의료 부문 역량강화 노하우를 공유하여 해당국의 부족한 의료 인력과 예산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글로벌 CSR 활동

KOTRA 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글로벌 CSR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내기업 및 해외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인력 육성 지원으로 신흥국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글로벌 CSR 사업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수출 환경에 대응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한국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현지의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발전을 도왔습니다.

베트남 유비쿼터스 기반 교육환경 개선학교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교육관계자 대상으로 e-Learning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수함으로써 현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몽골 캐시미어 사업에서는 한국의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지의 사업가들을 연결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협업 체계를 확대하였고, 몽골산 캐시미어 상품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네팔 굴미지역에서는 현지 생산협동조합에 현대식 커피 재배 및 포장 기술을 전수하여 커피 재배 생산성 증대와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국내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활동

KOTRA 는 국내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별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해왔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고도화하여 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K-Move Center 는 취업 준비, 채용 과정, 취업 후 관리까지 일관된 글로벌 취업지원을 위한 KOTRA 의 one stop 해외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51 개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지역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신규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직자들의 일자리 선택폭을 세계무대로 넓혔습니다. 나아가 취업정보 및 현지정보 온라인 DB 구축, 온·오프라인 멘토링, 해외 취업자간 교류 네트워크 조성 등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KOTRA 는 유관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협업 사업을 통해 국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외교부, 산업인력공단과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해외취업 붐을 조성하였고,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KOTRA 는 고용 유망 분야에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가와 외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외투기업채용지원팀을 신설하여 외투기업 맞춤형 채용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및 외국인투자주주간과 연계한 취업상담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국내 인재들과 외투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KOTRA 는 2017 년 기준 국내 일자리 15,088 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17.16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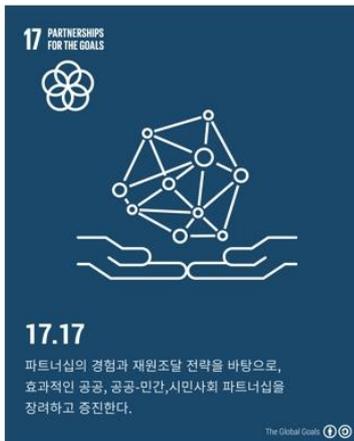
The Global Goals 17

글로벌 파트너십은 유엔의 개발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체계로서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2000)에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에서는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빈곤퇴치와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발협력 주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 역시 단일 국가를 넘어선 민간기업, 시민사회, 의회,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2012)의 결과문서에 이어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글로벌 파트너십을 향하여(2014)'는 지식과 기술, 재원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도상국의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견인차로 보고, 국가의 역량과 필요, 개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7.17은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글로벌 파트너십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The Global Goals 17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민간단체, 기업, 여성, 청소년, 농민,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선주민을 9개의 주요그룹(Major Group)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와 이행체계를 담은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서부터 수립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의 개발 참여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몬테레이 유엔개발재원총회(2002)에서 집중 조명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부문이 가치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DGs는 파트너십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8.b는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운용, ILO의 세계일자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에서 주최한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은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이 빈곤 퇴치 및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책 고안을 할 때 청년,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기타 모든 취약 계층 및 개인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문제에 특별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ILO 협약의 비준 및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ILO는 98차 회의(2009)에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을 채택하여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실업 및 불안정한 고용에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9년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동 협약의 충분한 활용 및 촉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 역시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4.4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UNESCO)의 '1962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기술, 직업 교육(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을 처음 집중 조명하였고, '2001 전문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개정판'에서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고용과 취업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교육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960-70년대 초 개도국을 지원하는 양자, 다자 협력의 핵심 요소였던 기술 발전(Skills Development)과 기존의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을 더한 TVSD는 1996 정책강령과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0년 EFA 목표 3번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활능력과 학습 촉진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이에 SDGs에서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유한킴벌리,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선정

[SR경제&라이프] 유한킴벌리, 4년 연속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기업 선정

이의진 기자 승인 2019.06.27 16:42



-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는 27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가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힘.
- 이번 결과로, 유한킴벌리는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우수기업에 선정됨은 물론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을 지속하게 됐으며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임.
- 유한킴벌리는 협력회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경영을 진행하여, 상생협력펀드 등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나누는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유한킴벌리는 또한 사회적인 과제인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을 추진하고, 시니어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제품개발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셜벤처 등을 발굴,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38개의 소기업을 육성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500개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해 왔음.

[SR 타임스](#)

2. IBK 기업은행, 미얀마에 친환경 쿡스토브 1만 2천대 지원

IBK기업은행, 미얀마에 친환경 쿡스토브 1만2천대 지원

임보라 기자 | 승인 2019.07.05 16:19 | 댓글 0



- IBK 기업은행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미얀마에 친환경 쿡스토브 1만 2000 대를 지원한다고 7 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지난 5 일 미얀마 현지에서 미얀마 환경보존자원부, 기후변화센터와 쿡스토브 전달식을 가졌다.
- 친환경 쿡스토브는 일반 화로 대비 연료비용 66%, 조리시간 50%를 감축할 수 있는 저탄소 고효율 취사도구로 전기보급이 이뤄지지 않아 나무땃감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면 탄소배출량과 나무땃감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음.
- 기업은행은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UN 에서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 중소기업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쿡스토브를 추가로 지원해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와이어](#)

3. 예탁결제원, 기보·남부발전과 감사업무 선진화 협약

예탁결제원, 기보·남부발전과 감사업무 선진화 협약

2019-07-03 16:09



- 한국예탁결제원(감사 안상섭)은 3 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 청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이번 협약을 통해 3 개 기관은 ▷감사 인력의 상호 지원 및 교류를 통한 협력(교차)감사 실시 ▷내부통제 취약 및 우수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정보 공유 ▷합동 워크숍 및 공동 학습활동 개최 ▷지역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각 기관 감사인력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금융거래 분야에서, 한국남부발전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의 평가와 보증 분야에서 감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안상섭 예탁결제원 감사는 "본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각 기관은 채용 절차, 경쟁입찰 평가 등에도 상호 인력을 교류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감사업무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음.

[헤럴드경제](#)

4. 동서발전, 사회적가치 창출 위해 내·외부 전문가 한자리에

동서발전, 사회적가치 창출 위해 내·외부 전문가 한자리에

제1차 사회적가치위원회 개최

양세훈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9-07-04 17:32



-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4 일 서울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2019 년 제 1 차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위원회는 총 10 명(사내·외 위원 각 5 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를 격상시키고 사회적가치 활동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에서도 위원장을 선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됨.
- 선정된 위원들은 '안전, 환경, 일자리, 사회공헌, 지역상생, 동반성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과 사회적가치 추진사업에 대한 피드백, 발전방안 제안의 역할을 하게 됨.
- 이날 위원회는 동서발전의 '사회적가치 플랫폼'과 화폐가치 측정결과 및 2022 사회적가치 목표 공유에 이어 '사회적가치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 발표와 '사회적가치 업무처리기준' 제정 검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들의 경영제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음.

[브릿지경제](#)

5. HUG, 1일 창립기념일 맞아 '인권경영헌장' 선포

HUG, 1일 창립기념일 맞아 '인권경영헌장' 선포

창립기념일을 'HUG 인권의 날'로 지정

기사입력 2019-07-01 17:39:44 | 송학주 기자 | hakju@newdailybiz.co.kr



▲ 이재광 HUG 사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일 부산 본사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HUG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을 'HUG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 HUG 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경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권 기준 △차별금지원칙 △노동권 △반부패·투명경영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HUG는 지난해 11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4월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실행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해 본격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
- 이재광 HUG 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헌장 선포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으로 인권경영 실행에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경제](#)

CSR 뉴스

1. 유엔 사무총장 "기후 급변 예측보다 빨라"...긴급 대응 촉구

유엔 사무총장 "기후 급변 예측보다 빨라"...긴급 대응 촉구

송고시간 | 2019-07-01 00:33



30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
[EPA=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0 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 급변하는 기후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구테흐스 총장은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기후 급변사태에 직면했다"라며 "매주 홍수, 가뭄, 열파, 산불, 폭풍 등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이어 "기후 급변은 세계 최고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가 이에 대응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후의 변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했다.
- 그는 "파리의 약속(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모두 지켜도 금세기 말에는 평균온도가 최소 3 도 오르게 되고 이는 생명체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라며 "그렇지만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찾은 희망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7 월 1 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 회의는 9 월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열렸음.

[연합뉴스](#)

2. 국민연금, 9월까지 ESG 책임투자 방안 마련키로

국민연금, 9월까지 ESG 책임투자 방안 마련키로

2019-07-05 08:34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DB]

- 국민연금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ESG' 고려한 책임투자의 구체적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며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도 마련해 연금사회주의 및 독립성 논란에 대응할 방침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책임투자 확대가 장기 수익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고 이는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각자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도 본격적으로 책임투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임.
-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후속조치도 올 9월까지 마련할 방침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주활동을 보다 투명·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특히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는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음.

[헤럴드경제](#)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7 월 2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부산국제교류재단
- 충북대학교
- 이젤

2. COP/COE 제출회원

7 월 2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10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전력기술
- 코웨이
- 현대자동차
- LG 전자
- LS 전선
- 안양도시공사
- 교보생명보험
- 예금보험공사
- 서울특별시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한국타이어, KDB 산업은행, 포스코,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전산업개발,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유니베라,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널,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LG 전자, 우리은행, 두산, CJ 제일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교보생명보험, 케이티에스테이트, 한국가스기술공사, 케이티넷, 롯데제과,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비타트,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독립기념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